

# 첫승 힘받은 광주FC, 기세 이어 연승 가즈아~

14일 부산과 K리그1서 재격돌  
 '부산 킬러' 펠리페 활약 기대  
 부상 선수 복귀로 전술 폭 넓어져  
 전남은 부천 상대 6경기 무패 도전

5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한 광주FC가 안방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0 K리그1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팀' 광주는 앞선 수원삼성과의 경기를 통해 K리그1 적응을 끝냈다. 5월 30일 울산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로 개막 후 4경기 만에 승점을 획득한 광주는 지난 7일 수원 원정경기에서 마침내 첫승을 신고했다. 수원전 승리도 승리지만 가장 기다렸던 펠리페의 골이 터졌다는 점에서 광주의 기쁨은 배가 됐다. 지난해 'K리그2 득점왕' 펠리페는 0-0으로 경기가 끝나가던 후반 45분, 머리로 시즌 첫 골을 신고하며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마르코가 펠리페의 첫 골에 도움을 줬다는 점도 광주는 반갑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던 펠리페와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의 날카로운 움직임 속 부상병들의 복귀까지 이어지면서 광주의 전술 폭이 넓어졌다. 원일상에 이어 율리안과 김정환까지 부상을 털고 복귀하면서 공격적인 스피드가 점점 오르게 됐다. 빠른 자원이 돌아오면서 측면에 활기가 돌고

있다. 또 앞선 경기에서 지난 시즌 K리그2 최소실점을 합작한 수비진이 골키퍼 이진형의 선방쇼를 묶어 첫 클린시트(무실점 경기)도 이뤄냈다. 연승에 도전하는 이번 경기는 '생존 전쟁 1라운드'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였던 광주와 부산이 무대를 바꿔 다시 만난다. 분위기는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지난해 부산과의 승부에서 '뒷심싸움'에서 이기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경쟁한 울산, 수원을 상대로 승점을 쌓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광주의 뒷심에 고전하며 승강플레이오프를 거쳐 K리그1으로 온 부산은 아직 승리 없이 3무만 기록하고 있다. 앞선 상주상무전에서도 이정협이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 무승부에 만족했다. 하지만 부산은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다. 이동준, 이정협, 김문환, 호물로 등 부산 승격의 주축이자 무서운 폭발력을 지닌 선수들이 광주를 상대로 설욕을 노리고 있다. '부산 킬러' 펠리페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다. 펠리페는 부산전 4경기에 나와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앞선 라운드에서 득점포까지 가동하며 물이 오른 만큼 펠리페가 '부산 킬러'로서 면모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광주 '주장' 여름은 이번 경기를 통해 200경기 출장에 도전한다. 여름이 부산전에 출격하면서 2012년 고향팀 광주에서 시작된 그의 K리그 여정은 200경기에 이르게 된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6경기 무패를 노리며 부천



지난 7일 수원 원정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한 광주 펠리페가 오는 14일 열리는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연속골로 팀의 연승을 노린다. 수원전에서 골을 넣은 뒤 도움을 기록한 마르코와 포옹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으로 간다. 전남은 앞선 5라운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즐리안의 극적인 페널티킥으로 1-1 무승부를 이루며,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14일 오후 6시 부천FC와 만나는 전남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지만 1승에 그치고 있다. 승격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전남엔 승리가 절실하다. 전남은 5경기 2실점의 '잔물 수비'를 과시하고 있

다. 전남이 앞선 라운드 MVP에 뽑힌 부천 공격수 이현일을 봉쇄하며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덴마크 남자프로골프 대회서 여자 선수 우승

3개월 만에 재개된 덴마크 남자프로골프 대회에서 여자 선수가 우승했다. 에밀리 페데르센(24·덴마크·사진)은 9~10일 덴마크 로모 골프클럽에서 열린 ECCO 투어 '브라보 투어스 오픈'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13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페데르센은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66타를, 2라운드에서는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7타를 적어냈다. ECCO 투어는 덴마크 프로골프 투어로, 스웨덴 골프 투어와 함께 유러피언투어 산하 노르딕 골프 리그를 구성한다. ECCO 투어는 지난 3월 9~11일 카탈루냐 리조트 챔피언십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 브라보 투어스 오픈으로 시즌을 재개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82명의 선수 중 9명이 여성 선수였다. 페데르센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수년간 힘들었는데 실력이 좋아

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우승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페데르센은 2015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히어로 위민스 인디언 오픈에서 우승하고 그해 LET 신인상을 받았다. 2015년 4개 여자골프투어 대항전 더 링크에 유럽 대표로 나섰고, 2017년에는 유럽과 미국의 여자골프 대항전 솔하임컵에 출전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페데르센이 남자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몇 안 되는 여자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2002년 수지 웨일리(미국)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코네티컷 지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2012년에는 리디아 홀(영국)이 웰시 내셔널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에서는 1945년 LA 오픈 3라운드에 진출한 베이브 자하리아스(미국)가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여자 선수다. <연합뉴스>



## 잇단 부패 의혹에... IOC의 경고

바흐 위원장 "역도, 올림픽 종목서 퇴출시킬 수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역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할수록 부패 의혹이 짙어지는 국제역도연맹(IWF)을 향한 경고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1일(한국시간) 화상으로 집행위원회를 연 뒤 "최근 IWF의 횡령, 도핑테스트 기피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역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캐나다 법률학 교수이자 도핑 규정 전문가 리처드 맥라렌이 이끄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IWF의 부정 의혹을 조사 중이다. 부패의 축은 타마스 아얀 전 IWF 회장이다. 아얀 전 회장은 IOC가 IWF에 전달한 올림픽 중계권 등을 스위스 개인 계좌로 받는 등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IWF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는 "IWF가 1040만달러의 회계를 누락했다"고 전하기

도 했다. 아얀 전 회장은 "2013년 아제르바이잔 선수 12명이 금지약물 복용 의혹을 받는 걸 알면서도 국제대회 출전을 눈감아주고, 태국 역도선수들의 금지약물복용 의혹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얀 전 회장은 1976년 사무총장으로 IWF에 입성해 2000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회장으로 장기 집권했다. 애초 그의 임기는 2021년 5월까지였지만,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4월에 사임했다. 그러나 아얀 전 회장은 "모든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역도연맹 회장이자 IWF 부회장인 우르줄라 파판드리아가 90일 동안 임시회장으로 연명을 이끌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IOC는 IWF 새 집행부의 개혁 의지를 지지한다. 도핑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개혁을 수행해야 역도 종목이 과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캡카 "무관중이면 라이더컵 출전하고 싶지 않아"

"팬이 없다면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브룩스 캡카(미국·사진)마저 미국과 유럽 대항전인 라이더컵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면 출전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캡카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라이더컵은 팬이 만드는 대회이고 팬 덕분에 특별한 대회"라면서 "팬 없이 대회를 한다던 다른 대회와 다를 바 없다. 라이더컵이 흥미진진한 이유는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이저대회에서 4차례 우승한 캡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의 휘슬링 스트레이츠 골프장에서 열리는 예정인 라이더컵에서 미국팀 핵심 전력이자. 그는 무관중이라도 대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럽팀 주축 멤버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온 램(스페인)도 '무관중 라이더컵'에 강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갤러리를 입장시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연기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매길로이는 "대회 불참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김창훈 vs 최광호...바둑 '미래의 별' 누구냐

14일 우승컵 놓고 단판 승부

김창훈 3단과 최광호 3단이 '미래의 별' 다섯 번째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한다. 10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김창훈과 최광호는 오는 14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제5기 미래의 별 신예최강전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둘러싸고 단판 승부를 펼친다. 미래의 별 신예최강전은 입단 5년 이내 프로기사 73명과 한국기원 연구생 4명 등 총 77명이 겨루는

바둑 신인들을 위한 대회다. 29세에 늦깎이 신인왕에 도전하는 최광호는 9일 4강전에서 김희수 2단에게 9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2016년 입단해 이번이 마지막 미래의 별 출전인 김창훈은 8일 4강전에서 금지우 초단을 흑 불계승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다. 우승 상금은 1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500만원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결백
3관	결백
4관	결백
5관	침입자
9관	침입자
7관 씨네커플	에어로노츠,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레옹 디 오리지널
8관 씨네커플	위대한 쇼맨, 언더워터, 도미노, 그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철가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